



건설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영세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될 수 있다

건설인력공급업체 인건비에 '핑크'

도내 일부 건설업체들 소개한 노동자 임금 지급 미뤄 대신 부담 짊어져

건설 현장 인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인력을 공급한 건설회사가 부도나 수천여만원에 달하는 일일 노동자 인건비를 대신 부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B 건설인력업체는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건축자에게 노동자를 소개해 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인건비 지급에 전전공공이다.

부도를 내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 공급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 연쇄 피해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현장 대부분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일 노동자를 소개 받는다. 전주시에만 150여개 업체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인력공급업체는 노동자 하루 일당 10만원 중 10%인 1만원을 소개비로 받는다.

1만원에는 식대비와 간식비가 포함되며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건설업체 대신 지급하게 되는 계약이 성립한다.

문제는 건설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낼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영세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될 수 있다는 점.

300만원 이하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대신 지급하고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300

만원 이상이면 방법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설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가 계약체결시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게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인력공급업체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주시지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소액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악덕 불량채불업체가 많다. 현재 이들업체를 숙여내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인건비 체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 부분은 공급업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옳지만 하루 하루 같이 일하다보면 임금 지급을 미뤄도 말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차라리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서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다"고 했다.

이스타 항공, 티웨이 항공과 인천-오사카 공동 운항 개시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은 티웨이항공(대표 정홍근)과 함께 공동운항을 개시한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7일부터 인천-오사카 노선을 운항하는 티웨이항공 TW281편, TW282편, TW283편, TW284편, 이스타항공 ZB611편, ZB612편, ZB613편, ZB614편에 대한 공동운항 탑승이 시작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21일부터 양사간 공동운항(CODE-SHARE)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오사카 노선을 공동으로 판매해 왔다.

이를 통해 각 항공사간 2Daily(매일 2회왕복)로 운항하던 인천-오사카 노선 스케줄을 4Daily(매일 4왕복)의 스케줄로 확대 제공해 탑승고객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폭넓게 선택하고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 운항 판매를 통한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공동마케팅 활동에 따른 다양한 영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LCC로서 고객들의 니즈 충족과 수익성 확대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한국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나눠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길'을 주제로 한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길 사진 공모전'은 응모와 수시 시상 규모면에서 국내 최고 권위 사진공모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길'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공모하며 도로 사진 뿐 아니라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진도 응모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공사는 대상 2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4점, 입선 40점을 포함해 총 5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규모는 1,980만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5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도로공사는 9월 중순 수상 결과를 발표한 예정이며 수상작은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광영기자

전주 롯데백, 신진 디자이너 발굴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지난 3일 전주대 스타스타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롯데백화점과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패션 산업학과 졸업 작품 시상식을 시작으로 '신진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고 7일 밝혔다.

'신진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에 협약식을 갖고 치른 두번째 행사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오는 6월9일~12일까지 롯데백화점 6층 이벤트 홀에서 패션학과 학생 일러스트 맵진시를 시작으로 6월13일~16일 전주대 학생 샘플 상품 전시회를 가진다.

이어 오는 10월 최종 전주대학 패션산업학과 학생들을 파트너사와 연계시켜 제작에서 판매까지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박중구 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의 패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 또 미래를 이룰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루는 좋은 기회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하림과 함께 캠핑을~

고객초청 글램핑 이벤트 진행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 이사 이문용)은 "이름다운 자연 속에서 더운 여름날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 근교의 최고급 글램핑장으로 고객을 초대하는 '하림과 함께 캠핑간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해 매 여름마다 진행되고 있는 하림의 캠핑 이벤트는 가족, 또는 연인 단위의 캠핑족들에게 입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여름 이벤트로 자리잡았다.

참여자들에게는 최신 시설의 글램핑장 무료 이용권과 캠핑장에서 간편하고 맛있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하림 제품 이 제공됐다.

본 이벤트 참여 신청은 6월 19

일(일)까지 하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harimsim)과 블로그(blog.naver.com/harimmarket)를 통해 가능하다.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한 후 캠핑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될 예정이다.

1등(총 10명) 당첨자에게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라벤트리 코리아 1박 2일 이용권(일인당 1가족 4인 기준)과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하림의 인기 제품인 즉석 삼계탕, 하얀숙살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아쉽게 글램핑장에서 초대할 받지 못한 2등 10명에게도 하림 선물 세트(4만원 상당)를 증정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내일 공공구매 전시 상담회 개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2차 공공구매 전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 등 30여 공공기관과 60여개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좋은 물품을 구매하기 원하는 수요기관과 1:1 심층 상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생신제품과 공공기관의 주요 구매품목을 서로 파악함으로써 구매 상담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남원 농어촌공, 윤리후견인 지정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2년 미만 입사자 6명에게 윤리후견인을 지정하여 신입사원에게 올바른 윤리 가치관을 정립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기 위한 소정의 장을 가졌다.

부별 윤리후견 애칭을 정하고 선·후배가 함께 모여 ▲윤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청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 ▲명경 지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 등 청렴·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또한, 공사 윤리 강령 및 임직원의 행동강령, 청렴소식지인 '청자생존'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남원=유영철기자